

지하철6호선환승역(동묘앞역)조기설치청원에대한  
검 토 보 고 서

- 지하철 6호선 환승역동묘앞역(가칭) 조기설치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원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 청원은 서울시 중구 창신3동 20-17 이동규 외 8,126명의 명외와 행정자치위원회 이성호 의원의 소개로 2000. 11. 30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동 청원의 요지는 지하철6호선 착공당시 주민설명회에서 1호선 동대문역 환승통로를 건설하겠다고 홍보하였으나, 6호선 개통이 임박한 2000년 9월에 환승통로의 길이가 길고 기술적·시공적 제약 때문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6호선 동묘앞역(가칭)에 환승역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요하여 3~4년 내에 환승역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환승역 건설완료시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줄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공사기간을 3~4년으로 조기완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등 16억 2천5백만원울 반영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위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비고
6호선동묘 환승역건설		790	100	735	

- 또한 서울시의 의견은 설계소요기간을 단축하여 2001년 7월부터 시공자가 선정되는 즉시 착공하여 공사기간을 4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하므로 조기완공건은 청원인의 요구대로 추진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둘째, 환승역 완공시까지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 그 동안 약간 셔틀버스를 운행할 사례는 2호선 당산철교 철거시 당산역과 합정역간

전철운영 단절에 대한 연계수송 대책의 일환으로 운행한 사례가 있으나, 동건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운행노선 단절이나 기존 시설의 이용불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산철교 철거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동묘역과 동대문역 간의 중심거리는 약 500m로서 승하차 대기시간, 도로 혼잡여건 등을 감안하면 소요시간은 도보로 이용하는 시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셔틀버스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지하철을 직접 이용하지 못한 지역과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고, 또한 일반버스 사업자들의 민원제기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지하철과 일반버스 등 대중교통 전체의 연계이용 관점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지만, 동건은 시민들의 민원을 감안할 때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지하철6호선 환승역 동묘앞역(가칭) 조기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